

사회문화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Education as a Social Literacy Education

- Focusing on Ecological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

조 용 개

(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바로 올바르지 못한 교육에서 나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는 교육적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교육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환경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윤리교육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의 발생은 결국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된 환경교육에서 환경윤리적인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학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인간중심의 윤리와 세계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중심의 윤리와 세계관이며, 이러한 생태학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바로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은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윤리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 내에서의 교육'에서 '환경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은 물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생태학적 환경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 시민 의식의 형식(formality)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내용(contents)으로 하고, 공동체의 발전의 의미를 사회에서 생태계로 확대하여 이에 공헌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교육학회(1977)에서는 환경교육의 기본 목적을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 즉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두었다. 그러므로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와 가치관을 기르는 환경윤리교육은 인성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윤리교육은 생태학적 환경 위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생존을 위한 교육,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면서 현재 생태학적 환경 위기 문제와 미래에 도래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 행동지향적인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교육 그 자체가 환경교육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육과정의 바탕에 생태학적 개념이 들어가야 하며, 생태학적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 생존의 위기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교육은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사회교육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새로운 환경교육의 이념, 담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 비판, 시대적 요청인 위기상황의 교육적 성찰, 인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 및 인성교육의 통합, 교육과 일의 연계, 때와 곳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학습, 현장성 지향 등은 그대로 생존을 위한 환경

교육이 지향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이념, 담론,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간 행동적, 조작적, 그리고 가치중립적 과학관에 근거한 '기술공학적 환경교육'은 자연을 정복하여 개발하는 인간관 및 세계관을 지향해 왔으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조화나 협력보다는 업적위주의 경쟁체제에 입각한 환경파괴적인 삶의 방식이나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고차원적 윤리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의 위기관리적인 '기술적 수준의 환경교육'을 넘어 진정한 생태학적 위기 극복 및 대안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서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간중심적 학문과 자연중심적 학문을 통합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교육이 인간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계와 다른 종을 대하는 데 있어 생태학적 문해력과 도덕적 탁월함을 보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행동변화를 위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가치관, 사고 및 태도 등의 변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생태학적 또는 환경적 문해력(ecological/environmental literacy)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태학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을 향한 우리의 기술과 문화와 도덕을 재정립하는 생태학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환경윤리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생태학적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시각(holistic view)'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생태적 지식을 갖추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기르고, 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존중하게 하며, 인간의 그릇된 생활방식을 통한 생명파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도덕적, 윤리적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문해력을 터득하여 인간과 자연의 통일적 구조를 갖는 환경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생태학적 문해력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재개념화된 환경윤리교육은 곧 지속가능한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중심적 환경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과 자연이 대립적 태도를 취하는 기술공학적 환경교육에 대한 반성의 연장에 선다면 생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인 것과 미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재통합해야 한다. 생태학적 위기가 모두 근대적 문화의 개발 중심의 신념에 도전하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생태주의의 근본적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은 한 마디로 '환경에 대한(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 지식의 전달과정이거나 '환경으로부터(education from the environment)' 배우는 환경윤리적인 덕성을 기르는 교육만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education for the environment)' 의식 고양, 행동 실천 그리고 더 나아가 '생태학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은 학생들에게 각기 자기 스스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문화교육'으로서 스스로의 환경을 만드는 도덕적,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인 판단과 참여를 북돋아 환경복지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9여년간 청소년들에게 늘푸른 환경과 울곧은 교육, 그리고 건강한 문화를 전해 온 작은 쪽지인 『우린친구』(Eco-Friends)를 소개하고, 쪽지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최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협력적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사회환경교육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다음 세대를 위한 대구환경교육센터의 주요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문화교육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생태학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은 첫째, '기존의 교육에 갖는 파괴성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둘째, 인간성의 회복,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셋째, 인지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갖는 '생태학적 상상력과 도덕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어야 하며, 넷째,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사유의 전환'을 통해 철학적, 종교적 문제로 접근해 나가는 '생태학적 각성과 영성적 자각의 길로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